

‘좌파단체’인 한국여성단체연합의 납득할 수 없고 일방적인 성평등 걸림돌 선정은 정치 공격입니다.

오늘(7일)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가사돌봄노동의 가치를 폄훼하고 외국인노동자를 차별했다며
‘성평등 걸림돌’로 선정했다.

하지만 이는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의 여성친화정책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와 이해도 없는 행동이다.

현재 오 시장과 서울시는 여성이 살기 좋은 서울 조성과
여성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

먼저 오 시장은 2006년부터 여성행복정책을 도시 전 분야에 정착시켜왔다.

전국 최초로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개관했으며,
‘디지털 성범죄 인공지능(AI) 삭제 프로그램’을 통해
평균 2시간 소요되던 것을 3분 이내로 단축하여
지난해에만 57만건의 불법 촬영물을 검출하고 삭제를 지원하는 등
여성들의 일상 복귀를 돕고 있다.

또한 에스오에스(SOS) 비상벨과 안심경보기도 6,100세트 이상 지급해
여성들의 일상 안전도 지켜주고 있다.

이 외에도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스토킹 범죄 피해 지원을 위해
전국 최초로 ‘스토킹 피해 원스톱지원센터’를 개관하고
민간경호와 이주 등을 지원해
100여명의 피해 여성이 신체적·정서적 폭력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했으며
예측 못할 폭력으로부터 여성들에게 단단한 보호막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 단체가 성평등의 걸림돌이라고 언급한 외국인 가사도우미 정책 제안은 일하는 여성의 가사노동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육아로 인한 불가피한 경력단절을 막고 빠른 사회복귀를 도와주는 선제적 조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가사노동과 아이돌봄으로 지쳐 쓰러지기 직전인 여성들의 처진 어깨를 당당하게 세워주고 여성들의 자존감과 역량을 펼칠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판단으로 여성시민단체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길 바란다.

2024. 3. 7.

서울특별시 대변인 신선종